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헝가리 내륙운송 물동량, 트럭킹 약 67%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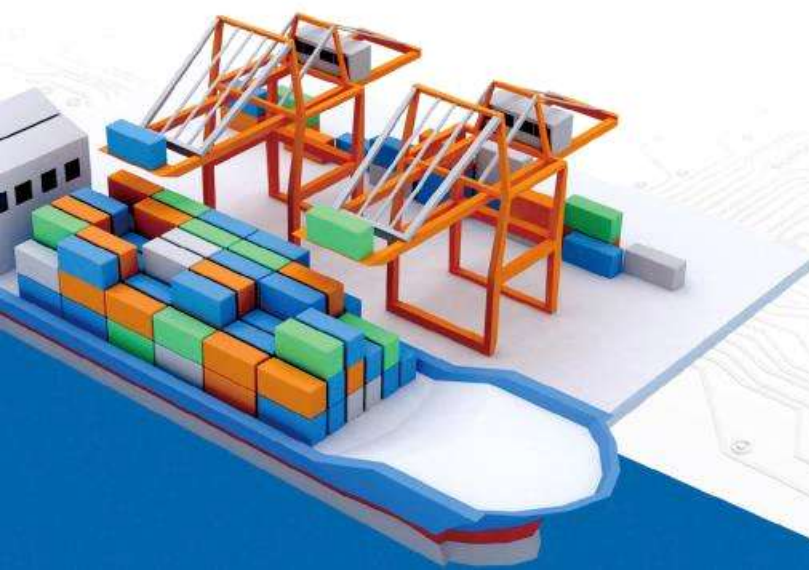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아부다비항만청, 델마항 2단계 개발 완료
2.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 '컨' 운임 1,000달러 돌파
3. 미국 버지니아항, 대서양 횡단 유럽-카리브해 직기항 서비스 개시
4. 2020년, 랜섬웨어 감염 중심 사이버 위협 증가

명사 스피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인 이동제한, 물류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주요국을 능가하는 회복세를 보이며 4년 연속 5천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역인들의 지혜와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으로 회복의 활로를 열고 민관이 힘을 모아 혁신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2020. 12. 9.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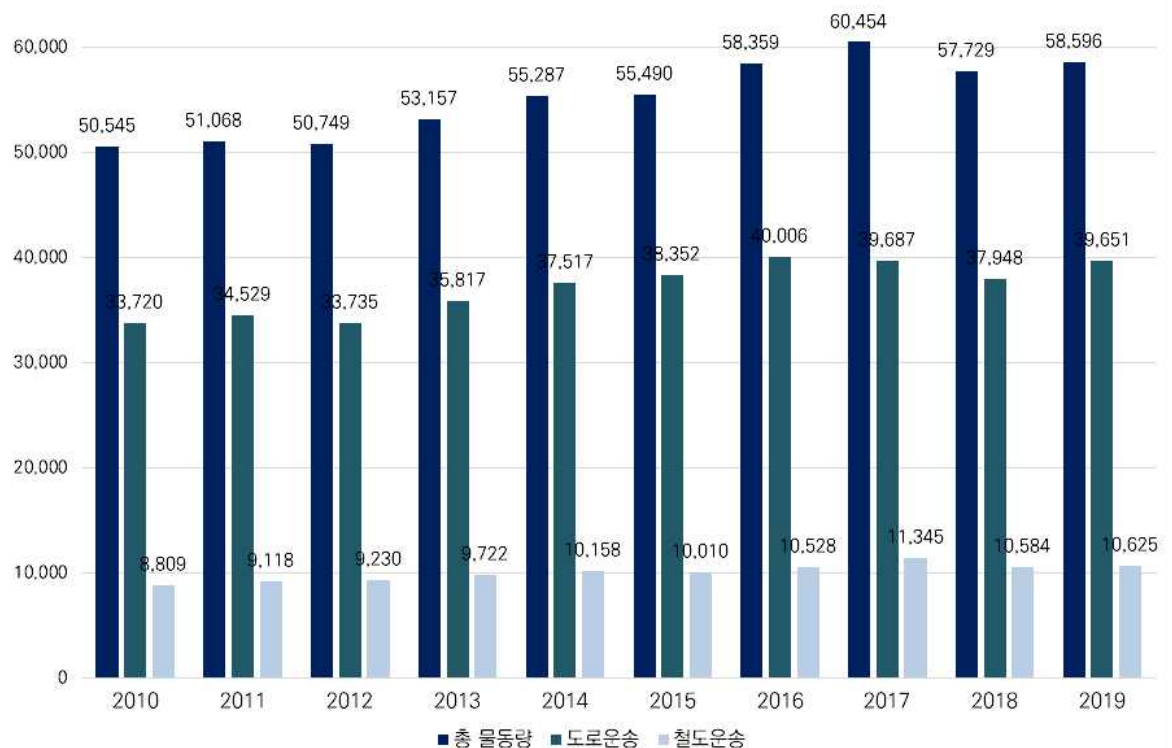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헝가리 내륙운송 물동량, 트럭킹 약 67% 차지

헝가리 내륙운송 물동량 추이(2010~2019)

(단위 : 백만 톤-km)



자료 : statista.com

- 지난 10년간 헝가리의 내륙운송 물동량을 파악한 결과 트럭킹이 약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헝가리의 내륙운송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총 585억 톤-km로 이중 트럭킹이 약 396억 톤-km로서 전체의 약 67.7%를 차지, 이어서 철도운송(18.1%), 내륙수로(3.6%) 순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헝가리 내륙운송의 물동량 변화를 파악한 결과 전체 물동량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운송수단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12.09.)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아부다비항만청, 델마항 2단계 개발 완료

- 지난 12월 5일 아부다비항만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델마(Delma)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됐음을 발표함
 - 델마는 아랍에미리트 서부지역인 알 다프라(Al Dhafra)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약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여겨짐
 - 알 다프라 지역은 아랍에미리트 면적의 71%를 차지하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낮아 사회 및 경제 성장이 아부다비와 같은 중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딤
 - 델마섬을 포함한 알 다프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델마항 개발이 시작됐으며, 지난 12월 5일 아부다비항만청은 델마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됨을 발표함
 - 델마항 2단계 개발은 i) 다목적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객선, 어선, 유람선 등 최대 60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15m 길이의 안벽 구축, ii) 선박 대피처 마련을 위한 방파제 건설, iii) 안전한 입항을 위한 준설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함



자료: <https://www.adports.ae>(검색일: 2020.12.7.)

-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다목적항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델마항의 편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다목적항이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목적항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 및 파급 효과와 관련 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Abu Dhabi Ports Company, 『Abu Dhabi Ports Handbook 2012/13』, 2012.(검색일: 2020.12.7.)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 '컨' 운임 1,000달러 돌파

- 2020년 11월부터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으로 선사가 일본 시장에 대한 컨테이너 공급 및 선박 할당을 축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 컨테이너 스팟 운임이 TEU당 1,0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음
 - 서아시아항 컨테이너 운임은 3,000달러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은 (싱가포르 항로의 경우) 최근까지 200달러 이하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1월초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11월 20일에는 운임지수가 802달러까지 급등했음
 - 이러한 배경에는 대형 선사의 경제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즉, 일본발 기간 항로(유럽항로 등) 운임이 높기는 하지만 컨테이너 회송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근의 운임 시황을 고려할 때 근해 항로에 컨테이너를 투입하고 선박량을 조절하는 편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임
- 아시아 역내 항로의 경우, 선사가 다수 분포하고 컨테이너 재고도 기간 항로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어 최근까지 여유가 있었음
 - 그러나 최근 북미 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기간 항로 운항 선사가 북미 항로에 40피트 컨테이너를 집중 투입시킴으로써 컨테이너 및 선박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¹⁾
 - 또한 아시아 역내 항로 화물을 한곳에 집중·집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중국발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역내 항로 화물을 중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중국발 화물 운송 스케줄이 우선시되면서 최근에는 일본 항만을 기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현재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는 컨테이너 공급과 선박이 부족한 상태로, 선사는 이미 계약된 화물 운송 및 컨테이너 확보에 급급한 상황이며 연내 신규 예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과의 격차가 지속되면 일본에 대한 컨테이너 공급이 더욱 곤란해지므로 각 선사는 일본발 아시아 역내 항로 컨테이너 운임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임
 - 아시아 역내 항로 최대 선사인 대만의 완하이라인(Wanhai Lines)은 일본 발 컨테이너 운임을 12월 1일과 15일, 2단계로 나누어 인상함(동남아 항로의 경우, TEU당 100달러 인상)
 -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선사의 경우에도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화주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음
 - 현물운임(spot rate)의 인상 폭은 이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동남아 항로에 비해 동북아 항로의 인상 폭이 작은 편이나,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스팟 운임은 수개월 전에 비해 4~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아시아 역내 항로에서도 북미 항로와 같이 물동량 급증과 컨테이너 선박 부족으로 인한

1)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추이에 따르면, 상하이발 북미·남아프리카 장거리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은 2020년 5월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수 배에 달하는 운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화물의 운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추가 선박 투입 동향이 관측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려해운은 11월말 한국발 일본항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위해 2,800TEU급 선박을 임시로 추가 투입하고 수출 대기 중인 우리나라 화주의 수출 화물을 운송한 바 있음
- 현재에도 컨테이너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관계로 12월에도 임시 추가 선박을 투입할 예정임

■ 참고자료 : www.marinavi.com(검색일: 2020. 12. 4.)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미국 버지니아항, 대서양 횡단 유럽-카리브해 직기항 서비스 개시

- 미국 버지니아 항과 하파로이드(Hapag-Lloyd)는 북유럽과 중부 대서양을 연결하는 신규 서비스인 캐리비안 익스프레스 서비스(CES; Caribbean Express Service)를 개시함
 - 기항지는 런던-로테르담-안트워프-버지니아-킹스턴-빌렘스타트(Willemstad)-오랑예스타트(Oranjestad)-산타마르타(Santa Marta)-푸에르토 리몬(Puerto Limon)-카우세도(Caucedo)이며²⁾ 주당 2,500~3,000TEU 급의 선박 6척이 운항됨



자료 : <https://ajot.com/news/port-of-virginia-is-only-us-east-coast-stop-for-reworked-europe-to-caribbean-vessel-service>

- 버지니아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로테이션을 조정함으로써 주요 수입시장인 북유럽과 수출화물의 신흥시장인 카리브해를 직접 연결하여 북유럽 수입화물의 중부 대서양으로 운송과 수출화물의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운송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버지니아항만청 CEO John F. Reinhart는 특히 그간 자메이카를 기항하지 않아 가금류 수출화물 점유율이 낮았으나 이번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출 냉동가금류의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참고자료 : www.joc.com(검색일: 2020.12.9.), www.ajot.com(검색일: 202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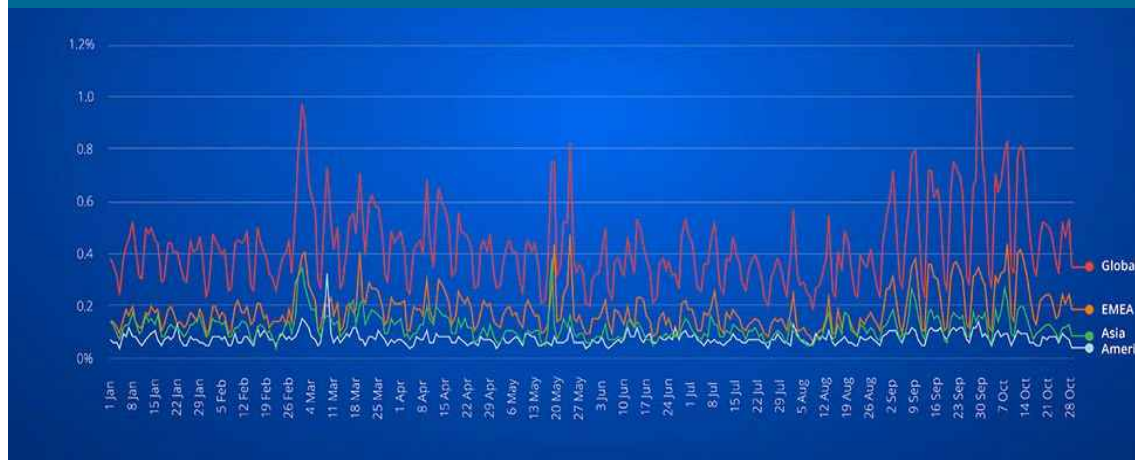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2) 먼저 북유럽 3개 항(런던, 로테르담, 안트워프)을 기항한 뒤 미국 버지니아로 간 다음 버지니아에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

2020년, 랜섬웨어 감염 중심 사이버 위협 증가

- 사이버 보안업체인 Acronis에서 2020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
 -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실시하면서 사이버 위협 사례가 증가함
 - 2020년에 있었던 사이버 위협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랜섬웨어로, Acronis에서 집계한 사이버 위협 중 50% 이상을 차지
 - 특히, 2020년 3분기에 랜섬웨어 감염 빈도가 많음
 - 기존에는 랜섬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암호 해제를 위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에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회사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경험함

2020년 3분기까지의 일일 랜섬웨어 탐지 건 수



주 : 빨간색은 글로벌, 주황색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녹색은 아시아, 흰색은 미국의 탐지 건 수
자료 : www.supplychaindigital.com

- Acronis는 향후 사이버 위협의 변화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함
 -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격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여러 회사의 데이터 절도가 가능한 표적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 늘어날 것임
 - 악성코드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의 정교함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독립형 보안 및 백업 솔루션은 효과가 없으며 보안 시스템 또한 빠르게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gital.com(검색일: 2020.12.08)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